

속면을 살피는 것도 좋지만 그부정적인 면의 여러 문제점들도 아울러 외면하지 말고 고찰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전반에 걸쳐 파급될 문제들을 미리 진단,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는 게.....
기를 살피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88서울올림픽」이 우리에게 미치는 제반영향에 대해 알아.....
보고 黑우울림피이 되기위한 생활를 찾고자 한다.

<편집자註>

88 서울 올림픽

1. 들어가는 말

올림픽은 인류문명 발전의 상징이자, 세계 각국 국민들의 화합과 우애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본지는 이번 호를 통해 88 서울 올림픽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다.

民衆의도 외면한 外華肉貧

政策的 측면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경험하며, 사회적 편견을 받는다. 본지는 이들의 처우와 정책에 대해 분석한다.

국제적 지위 향상 중요성 인정

전진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야 한다. 본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다.

外債절감 逆行 우려

經濟的 측면

외국인 채무의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본지는 외채 관리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指導層자각없이 實効不可

지도층의 자각 없이 추진된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본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올림픽 聖域化는 政治의혹 유발

올림픽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한다. 본지는 올림픽의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탄력있는 피부! 회고 깨끗한 얼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쑤티크림 미미론

꼭 함께 사용하세요.

- 기미, 주근깨, 여드름 전문치료
- 땀샘(땀구멍)의 확대방지
- 모공(털구멍)의 먼지, 개기름 제거
- 우수한 미백효과(회고 맑은 피부)
- 보드랍고 탄력 있는 피부
- 약산성 고급 영양크림 듬뿍 함유

신약의약품수입회사

본사: 서울 972-8740, 7565, 서울특별시 744-4541-3
부산: 708-0558, 대구: 7024, 광주: 7024, 서울: 823-7154
서울: 714-1000, 서울: 714-1000, 서울: 714-1000, 서울: 714-1000

(株)時事英語塾 直영

현대 시사영어사 외국어 학원

<旧 현대 외국어학원>

- TIME, TOEFL, AFKN 청취, Word Power, Vocabulary, L.C., 성문 綜合英語, 英語實力基礎, 英語文法, 英語文法, 英語文法, 英語文法
- 韓人會話-(Speak-Along English 英語會話)
- 美人會話-(New English Course 英語會話)

大學·成人 英語·日語·中國語 수시등록 개강 10월 2일

파고대원 정문앞 시사영어사(273)4395~7-5081~2

밤과 낮

연속착용 <하이파 II 베스콘렌즈>

한미소프트렌즈

중로2가 종각역 한국주단 3층 ☎ 734-0590 부설: 의안제작

KGB 対 CIA

부록 1 세계를 전율시키는 KGB, 그 70만의 눈동자
부록 2 오늘날의 KGB, 그 숨겨진 魔手 (특별판 1000부 한정)
부록 3 CIA 관제자료

782-3681-783-1541/5 도서출판 多讀

오래아노부하고 볼이 입에 譯/값 3,200원

국내최대규모! 최신시설! 최고의강사진!

英語 日本語

美人會話, 기초회화 TOEFL, VOC 22,000 종합영어, 실력기초

佛語 獨語 中國語

Inlingua 獨語 中國語 신수경

중로·서울메식장위 제주은행 건너편 735-3939·2636

正進 외국어學院

통역·英·日 Guide

- ◎外國語 高級化의 지름길 (문법, 독해, 작문, 청취, 회화 5개 분야)
- ◎在學中 자격취득·아트바이트추천
- ◎전망 밝은 高所得 新人氣 職種
- ◎國際社會進出의 表現

高級通譯要員專門教育機關 (大生生特典)

現代觀光研修院

남영동 금성극장 옆 중소기업은행빌딩 715-0555, 716-0555, 713-0005

뉴스안경

안과·처방조제
△교정·유명회사 제품
△학생·실용·복합비
○안경·렌즈·안경테
712-1255 714-1255

S·L·I

세계외국어학원

영어·일어·한어
아카데미 TOEFL (미국인 L/C)
AFKN 공개강의 (매주 토요일)
석·박사과정 영어
유학준비과정 영어

수시등록 ☎ 553-9015/6
개강 10월 20일



勞働基本權 研究

辛仁鈴 著

지난 10여년간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노동교육과 대학에서의 노동법 강의를 담당해 온 辛仁鈴의 저서 「노동기본권연구」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노동3권에 대한 법 이론과 노동현실을 다루고 있는 「한국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 기본권보장의 실제」 등으로 되어있다.

<미래사刊・360면・4,500원>

企業生存戰略

엘빈토울로著 권택삼譯

「미래의 충격」과 「제3의 물결」의 저자인 엘빈 토울러의 최신작 「企業生存戰略」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초산업사회의 일반론을 기업세계에 적용, 초산업사회가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변혁의 물결과 충격에 극복하고 살아 남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할 조치들을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적용을 위한 경영층의 가정적 전제와 조직상의 변화에 대한 판단과 예측의 전제가 되는 필자의 일부 가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아당刊・263면・3,000원>

틀린 시대의 문학

金炳賢 著

문학과 지식인, 한국문학의 문제, 황석영, 박경리, 김원일의 작가론과 김수영, 바이도, 이태수씨의 세계를 분석한 평론집 「틀린 시대의 문학」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저자의 다섯번째 평론집으로 우리문학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였다.

<문학과 지성사刊・368면・4,000원>

지리산 등반의 감회

실로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었지만 그래도 3일간의 지리산 등반에 대한 감회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단지 그 산의 광대한 규모라든지 자연경관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일행은 1차봉기점인 진주에서 지리산 안내도를 몇장 사서 버스에 올라 멀리 소백산맥의 줄기들이 곳곳으로 뻗어있을 곳을 바라보며 사리·곡절을 지났다.

비포장의 비탈길을 걸으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르던 버스는 어느덧 지리산 아래에 위치한 중산리 휴게소에 우리들내려놓고 차도 피곤하였던지 한쪽 도로 비껴세워져 쉬고 있었다.

일행은 배낭의 무게를 재조정하고 산행에 조심하라는 배포원의 말을 뒤로하고 부지런히 올라 법제교를 지나고 순두류를 지나 계곡으로 들어섰다. 맑은 계곡물에 연신 목을 축이며 부지런히 올랐다. 이미 땀은 뺨으로 흘려떨어져 있었고 자리에 누워있으며 사서 고생한 한사람들 시원한 통채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해 투덜대기 시작했지만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산에서의 마음가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일깨워준후 용기를 내라고 했다.

이윽고 토터리 산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지도를 펼쳐보고 법제사가 가까이에 용기를 내어 다시 올랐다. 법제사 아래에 닿았을때 이미 여름이 짙어져 있었다. 다음날 새벽에 천왕봉 일출을 보자고 했으나 눈을 땀을 뺀 이미 렌트주위가 밝아져 있었다.

었다. 모두들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아침식사에 발발가에서 피어다니던 다람쥐에게도 아침식사를 대접했다.

천왕봉을 오르는 길은 아직껏

을 드러낸 고사목과 맛있는 바위의 조화는 기묘한 맛은 덜 풍기나 웅장함을 더해주는것 같았다.

시원한 약수를 물통에 담고



한뼉기 백합화의 순결한 뜻을 모른채 속화 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나친 말일까.

도끼를 대지 않은 천연의 처녀림이 수해를 이루고 있었고 여가서 바라보면 산비탈이 또 산이요, 골짜기마다 또 골짜기인 크고 넓은 계곡이 연이어 팔아줄 대하고 우미하여 참으로 신비경을 이루고 있었다. 흰 배다귀만

가파른 바위들을 기어올라 드디어 1,915m의 정상에 섰을때 한겨울처럼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패갑이 전신을 감싸고 있어 감을 잃기도 했다. 한없는 조망거점의 노적봉을 뒤덮은 운해는 바라보며 지리산과 더불어

있는, 또한 지리산을 거쳐간 영광의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 그리고 반역의 꿈을 꾸던 투쟁의 날과 권력을 위해 아부하는 자까지도 그대로 그 속에 들어 있는 듯했다.

우리 일행은 천왕봉 비석앞에서 가져간 음식으로 우리들 자신과 그리고 이방에 민중화가하루빨리 정착하기를 산신에게 절을 올렸다.

그러나 언제나 정상에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일행과 좋은날씨를 고려해 가장 난코스라 일컬어지는 칠선계곡으로 들어섰다. 계곡을 내려오면서부터 원시림에 휩싸였고 고산식물인 주목들이 거저거저 볼 수 있었다. 칠선폭포와 이만저만한 소(沼)들은 그대로 하늘과 숲이 어우러져 물속에 잠긴듯했다. 계곡이 깊어 하룻밤 더 아열을 했다. 다음날 계곡을 얼마쯤 내려가자 천왕봉을 오르려는 등산객과 조우를 하게 되었을때 반가움에 거듭 인사를 건넸다.

각박한 현대문명이 낳은 이기 속에서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눈앞의 이의만을 구하고 때론(은)이라는 신념에서 부를을 쫓아 출로론의 영화를 구하려고는 해도 짐짓 들에 핀 한뼉기 백합화의 순결한 뜻을 모른채 점점 속화

되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이러한 의미에서 잠시 나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갖게 된것이 꽤 다행이라 생각된다.

임현설

<토고대 일문과>

박정규

<법정대 경찰행정학과>

서운함 보다는 원망스러움이

조기 졸업을 하면서

우리는 배가 되면 혼자 가아한다. 저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이제 나의 그「때」가 온것 같다. 그 길이 힘들고 고독하더라도 난 작은 가슴 하나로만 떠나야한다.

나를 제외한 허전한 Campus를 보면서 정하는 마음 가늘길 없었다. 일평화기동한 母校라고 애착을 갖고 내가 힘은 것도 없거니와 머구기 나 또한 감사히 여길 만큼 힘입은 것도 없다.

아직 학교가 설립된지 얼마

학정실, 속 내린 졸업장.

학교를 떠나는 서운함보다도 허술하고 초라하다 못해 빈방하기 까지한 이 식(式)에 분노와 격분으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달래려해도, 원망스런 기분은 씻으려 해도, 파낸 것은 화상을 마구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

비산 공방들 들어 땀때마다 아깝다는 기분 들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값싼 人間으로 밖에 졸업하지 못함이 더욱 아깝고 오열을 느끼었다.

조기졸업

아직 우리 학교제도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고, 시행착오의 대상이라고 변명할 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런 시행착오의 人間만 배출할 생각인가?

「취업대책본부」라고 찾아간 곳은 책상위에 파란만 날리고 있고, 교수들은 자신들의 공부(?)에 아는 척도 안한다. 그래서 진정 경주 campus가 한국 속의 전지대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거창한 건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후배들의 분투로 세계적인 건물로 이름 떨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인물도 진정 세계적일 것이라는 마음가짐이다.

문필숙

<경주·문리대영문과>

文化短信

「세빌리아 이발사」

21일 하오 7시30분

국립극장대극장에서 오는 21일 하오 7시30분부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공연하게된다.

제6회 咸北書友會展

4~10일 디자인포장센터

제6회 咸北書友會展이 4~10일 디자인 포장센터에서 열린다. 함경북도출판사 서예가들의 모임으로 출품회원은 17명이다.

女流이영희 작품전

9일까지 문예진흥원 미술관

여류화가 이영희씨의 작품전이 9일부터 9일까지 문예진흥원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씨는 咸北서양학과와 美展프랑스스코아

나작품10점을 연주한다.

「兵士와 修女」

문예회관 소극장서

극단 대중극장은 「兵士와 修女」를 4~17일 하오 4시30분, 7시30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찰즈·소(作)그대여 純白의 영혼이여를 각색, 李榮基가 연출한다. 출연 金榮基 柳夏然.

申惠品피아노 독주회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서

申惠品 피아노독주회가 7일 하오 7시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申상은 스위스 티보베르가 국제음악제와 미국 보스턴의 페스티벌에 참가한바 있는 재원으로 모짜르트의 「완상곡」397번과 쇼팽의 「크리스탈리나 나작품10점을 연주한다.



지친 육체를 보며 서리가 쓰러진 미소를 머금어 왔다. 너는 도회지 생활에 낯설기 때문에 항상 외로움을 느껴야 했고 난 막한 공기를 호흡하며 몇 번씩 지 않는 조그만 강의물에 앉아 여러 수 십명이 선생님의 강의

생들은 감수하리라 부모님 곁에서 단신 상경했던 우리가 보살피 주는 이도 없었고 그 시절의 공명했던 생활로 인해서 부담스럽게만 했던 하루 생이 이젠 조그맣게 숨겨져 있다. 자취생활의 짜릿한 매력이고 아

에 귀를 모아야만 했던 짧은 재수생 시절이기에 난 나에게 조금이지만 지주였고 난 자신의 의지를 한창 실행하면서 불도저처럼 아집해를 저만큼 밀고 당겨야만 했다. 한중의 생수를 갈구했지만 떨어지는 낙옆을 밟으며 그 가을을 감 전혀 볼수

들다운 낭만이었음을... 동생아, 이제 그런 잔잔한 추억이 울해로 벌써 몇 해가 되지? 내가 성장해 감을 느끼며 난 책임을 느꼈다. 서리가 굳게 다짐하며 애지는 말이지만 절대로 우리부도님란은 실망시켜 드리지 말자

결하듯 했다. 빠른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었고 그보다 수학 공식 하나에 열여 단어 하나에 배고파했다. 하지만 난 그 배고픔을 슬기롭게 대처했기에 지금에 내가되지 않았나 싶다. 서리가 그러한 고

고 항상 맹세했지, 그런데 벌써 내가 대학입시생이 되었다니, 물론 내가 없으니 애잔과 같은 그러한 생의 도미는 덜 하리라 본다. 선택받은 인간이 한번은 겪는 일사파동이지만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심장이 제치는듯

제기랄, 거슬러온 빛이 어느새 까야 땅에 번개되어 버린다. 후다닥 저녁준비를 하려보면 뽕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저만큼 가버리고 내일을 기약해야만 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러한 생의 첫바퀴에서 나와 난 머리를 싸매고 어두운 밤 전등불을 가까이

하고 서리가 패배하지 않을려고 안간힘을 썼지. 김치 하나에 이력이 난 생활속에서도 일요일엔 조금의 분, 침에 여유가 있어 오뎅을 준비하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 틀이 마주 앉아 일주일의 피로에

한중의 생수를 갈구했지만 그 가을은... 하고 서리가 패배하지 않을려고 안간힘을 썼지. 김치 하나에 이력이 난 생활속에서도 일요일엔 조금의 분, 침에 여유가 있어 오뎅을 준비하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 틀이 마주 앉아 일주일의 피로에

한중의 생수를 갈구했지만 그 가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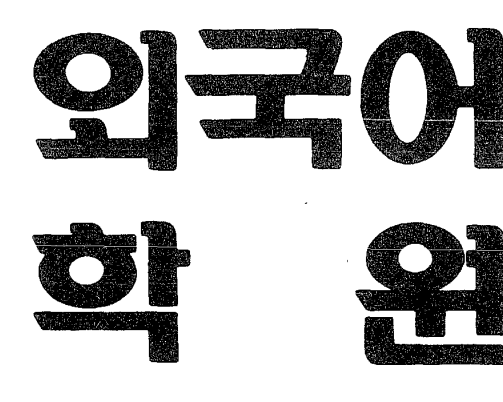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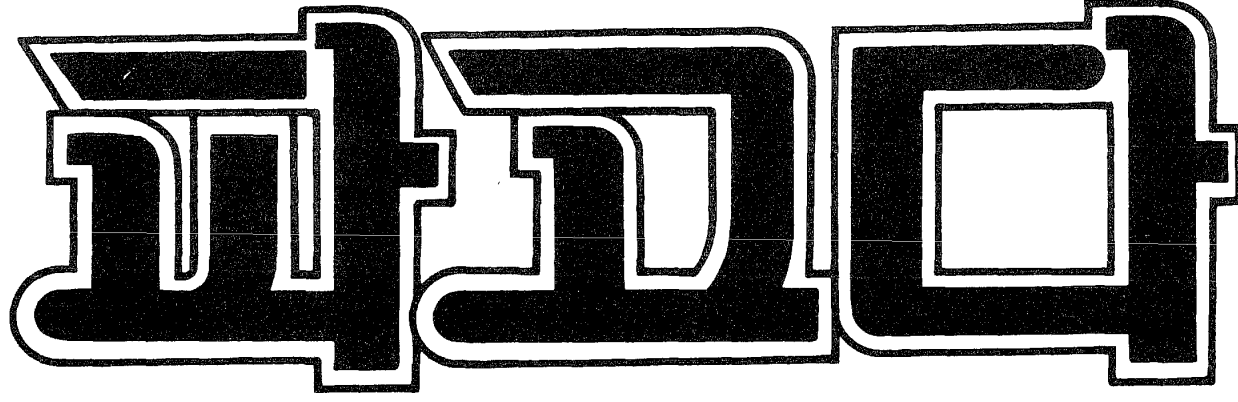
하고 서리가 패배하지 않을려고 안간힘을 썼지. 김치 하나에 이력이 난 생활속에서도 일요일엔 조금의 분, 침에 여유가 있어 오뎅을 준비하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 틀이 마주 앉아 일주일의 피로에

결하듯 했다. 빠른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었고 그보다 수학 공식 하나에 열여 단어 하나에 배고파했다. 하지만 난 그 배고픔을 슬기롭게 대처했기에 지금에 내가되지 않았나 싶다. 서리가 그러한 고

고 항상 맹세했지, 그런데 벌써 내가 대학입시생이 되었다니, 물론 내가 없으니 애잔과 같은 그러한 생의 도미는 덜 하리라 본다. 선택받은 인간이 한번은 겪는 일사파동이지만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심장이 제치는듯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흰빌딩 ☎ 274-4000 · 274-6821~2

